

미 대선 결과가 유럽연합 R&D에 미치는 영향

<'24.11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□ 트럼프 대통령 재선에 대한 EU 정상 반응

- EU 정상들, 트럼프 후보의 재선을 축하¹⁾
 -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“EU와 미국은 단순한 동맹 이상”이며 양측의 “경제 관계의 역동성과 안정성”에 일자리·무역·투자가 달려 있다며 “강력한 대서양 파트너십”을 촉구
 - 마크 뤼터 NATO 사무총장은 “트럼프의 리더십이 동맹을 유지하는 열쇠”라며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 유지를 기대

□ EU R&D 전반에 미치는 영향

- 유럽은 자주성과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²⁾
 -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유럽의 기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
 - 트럼프의 ‘미국 우선(America First)’ 정책은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위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.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의 빅테크 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음
- EU는 국방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음³⁾
 - EU는 트럼프의 재선 이후 연구혁신, 특히 국방 및 이중용도 기술에서 EU의 자립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
 - 전문가들은 EU가 미국 연구자들을 유치하고,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며, 영국과 스위스 등 가까운 파트너와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

1) KOTRA 브뤼셀무역관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-73호

2) <https://www.euronews.com/next/2024/11/08/trump-20-from-musk-to-big-tech-how-the-us-election-result-could-reshape-the-tech-industry>

3)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dual-use/call-more-eu-investment-rd-after-trump-win>

- EU는 방위 및 이중용도 연구를 강화하고, 국방 관련 R&D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며,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립적 방위 구조 구축이 목적
- 한편, 트럼프는 신속히 NATO 국방비를 회원국별 GDP의 2%로 올리자고 주장. EU에서는 미국의 NATO 방위비 및 우크라이나 지원금 삭감에 대비하고, 단기간 내 방위비 지출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담이 존재
- **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유럽의 과학 및 녹색 기술 투자를 확대할 기회라고 주장**
 - 친 화석연료 정책을 필두로 미국이 친환경 정책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면서 청정기술에 대한 글로벌 투자 둔화가 예상되나, 미국 내 프로젝트가 축소 되면 관련 투자가 역내 태양광, 풍력, 대체연료, 전기차, 전해조 프로젝트로 유입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EU가 청정기술을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⁴⁾
 - 유럽의 학자들은 트럼프의 재선이 미국으로의 과학적 인재 유출을 막고, 오히려 미국에서 유럽으로의 인재 유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 이는 유럽의 과학기술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을 열어줌
 - Scientists for EU의 창립자 Galsworthy는 유럽이 지금이야말로 녹색기술,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창업 지원과 자금 지원을 확대할 시기임을 강조⁵⁾
- **한편, 일각에서는 유럽과의 R&D 협력이 확대될 수 있음을 주장⁶⁾**
 - 트럼프의 반중국 정책은 과학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유럽과의 협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
 - 트럼프의 반유럽적, 반NATO적 입장에도 불구하고, 최근 네덜란드와 미국 당국이 네덜란드의 ASML이 중국으로의 판매를 일부 제한하고 미국 판매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기술 분야에서 유럽과의 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음
 - 양측은 중국에 맞서는 데 있어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에, 칩이나 기타 전략 기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을 것이라 주장

4) KOTRA 브뤼셀무역관 EU 경제통상 브리핑 제24-73호

5) <https://www.researchprofessionalnews.com/tr-news-usa-politics-2024-11-trump-election-win-stirs-scientific-anxiety/>

6)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international-news/assessing-trump-factor-us-science-fear-and-uncertainty>

□ 행사 개요

주제	What does Trump mean for global R&D?
개최 일시	2024년 11월 14일 (목) 15:00 - 16:00
행사 일정	<p>15:00 Q&A session: How should European science and tech policy adjust to Trump?</p> <p>15:20 Panel discussion: What will Trump do in S&T, and how should the scientific community react?</p>
행사 패널	<p>Simon Pickard / Network Director, Science Business</p> <p>Richard L. Hudson / Associate Editor and Vice-Chair of the Board, Science Business</p> <p>Brando Benifei / Member & Chair, US Delegation, European Parliament</p> <p>Erica Goldman / Director, Policy Entrepreneurship, 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(FAS)</p> <p>Suresh Venkatasubramanian / Professor, Brown University, and former Assistant Director for Science and Justice in the White Hous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</p> <p>Caroline S. Wagner / Professor, John Glenn College of Public Affairs, The Ohio State University</p> <p>Ricardo Miguéis / Head of Office, INESC Brussels Hub</p>

□ 행사 내용

-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미국의 정치적 변화가 글로벌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
 - 웨비나는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기술 정책이 AI 안전 및 규제에 미치는 영향, EU와의 관계에서 AI 법안의 추진 가능성을 주로 다룸
 - AI 분야 이외에도 전반적인 국제 과학기술 협력, 이동성 및 인재유치, EU 단일시장 등에서의 전망에 대한 견해를 공유
- AI 정책 및 규제
 -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AI 관련 규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, 특히 시민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소멸할 가능성이 큼
 -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EU 내부 갈등을 심화하는 등 EU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
 - 미국 행정부가 이러한 규제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EU는 기술분야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이며,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
- 글로벌 과학 협력
 - 중국이 글로벌 과학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2023년에는 미국보다 더 많은 과학 논문을 발표하였으며, 미국은 중국의 도약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축소하고 있음
 -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이 국제 과학자들의 인재 개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됨
 - EU-미국 협력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인 무역기술위원회(TTC)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며, 이를 위해 의회 간의 더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
 - 미국 내 정부에서 Operation Warp Speed(18억 달러 예산으로 COVID 백신 개발 지원)와 같이 R&D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, EU에서도 이와 유사한 접근방식이 시도될 가능성을 언급

○ EU 내 통합된 단일시장 구축의 중요성

- 과학기술 분야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며, AI 뿐만 아니라 연구혁신 전반에 대한 통합된 단일시장과 투자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
 - 이러한 통합은 연구혁신에서의 자원 공유 및 협력을 효율적으로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,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
 - 패널들은 또한 이중용도 및 국방 관련 연구에서의 협력의 어려움을 논의하면서 기후과학 및 건강과 같은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협력을 언급
-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정치와 글로벌 연구개발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국제협력과 혁신을 위한 도전과 기회를 부각시킴

□ 행사 관련 동향 자료

- ※ Science Business [기사\(Trump victory triggers uncertainty over transatlantic relations in AI\)](#) 내용을 바탕으로 함
- 트럼프의 AI 규제 자유방임주의와 EU의 규제 강화 대조로 인한 EU-미국 간 인공지능 및 기타 기술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
 - Science Business가 주최한 온라인 웨비나에서 전문가들은 양측의 협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, 그에 대한 해답이 간단하지 않다고 언급
- 트럼프는 AI 규제에 대해 자유방임적인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유럽연합의 규제 강화 움직임과 대조됨
 - EU가 AI의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규제하고 제한하려는 움직임과 대조적으로, 트럼프는 미국 산업계가 AI에 대한 자체 규칙을 정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됨
 - 미국 브라운 대학 교수이자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전 부국장 Venkatasubramanian은 “미국에서 AI법이 제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”고 말함

- 그는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가 “AI 혁신을 향한 공격적인 움직임”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는데, 이는 더 많은 연구비 지원이나 규제에 대한 간섭 없는 접근방식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할 수 있으며, “행정부의 귀를 기울이는 목소리는 다양하며, 실제로 어떤 목소리가 승리하느냐에 달려있다”라고 말함
- 트럼프의 가장 가까운 고문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는 대량 해고를 유발하고 허위 정보를 조장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늦추기 위해 AI 연구를 일시 중단하자고 주장했지만, 기술 업계는 계속하여 AI 기반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음
-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운영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AI를 활용할 수 있지만, 이러한 과정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고용한 AI 전문가들과의 긴장도 예상된다고 미국과학자연합의 정책 기업가정신 책임자 Goldman은 말함
- 그러나, 전문가들은 EU와 미국이 무역기술위원회(TTC)를 통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이탈리아 MEP이자 유럽의회 미국 대표단 의장 Benifei는 트럼프가 바이든의 AI 관련 행정 명령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지만, EU와 미국이 주요 대서양 포럼인 무역기술위원회(TTC)를 통해 협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 - TTC는 EU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공통 AI 지침에 대한 회담을 진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, 올해 초 유럽 집행위 부집행위원장 베스타거와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은 EU AI 사무소와 미국 AI 안전 연구소가 AI 모델을 평가하는 도구를 공동 개발할 것을 발표
 - Benifei는 미국 측과의 사전 논의를 바탕으로 TTC 포럼의 존속을 확신하고 있음
 - 유럽의회는 새로운 트럼프 정부에서도 TTC 형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미국 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자 함
 - 또한, 트럼프는 바이든의 녹색 연구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, 이민 기준을

강화하며, 중국의 스파이 행위로부터 연구를 보호하는 계획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

- 세계 최대 규모의 정부 보건 연구비 지원 기관인 국립보건원을 개편하여 질병 연구소의 수를 줄일 수도 있음

□ 시사점

○ 트럼프 행정부의 재선은 유럽연합에 기술, 국방, 연구개발 정책의 자율성과 정책적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됨

- 미국의 '미국 우선' 정책은 유럽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, 자립적인 청정 기술 및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게 할 것
- 트럼프 행정부 친화석연료 정책으로 미국 내 청정 기술 투자가 축소될 경우 유럽이 재생에너지, 대체연료 등에서 글로벌 선도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음. 청정 에너지 등 전략 분야에서 독립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짐, 청정 기술 분야 선도

○ 기술 규범 설정 및 글로벌 R&D 협력 변화

- 트럼프 행정부는 AI 규제에 대해 자유방임주의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, 규제 강화 입장을 고수하는 EU와의 정책 간극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- EU의 기술 규제 정책이 글로벌 기술 규범의 기준점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음
- 미국의 반중국 정책과 유럽의 대응은 R&D 분야에서 협력과 경쟁을 동시에 촉진할 가능성이 있음
- EU에 인재 유입과 청정기술 등 특정 분야에서 투자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며, 국제 협력의 장을 열어줄 가능성도 존재
- 유럽은 영국과 스위스 등 가까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